

제 2 장

인삼산업 동향

1. 국내 인삼 현황
2. 국외 인삼 현황





제2장 인삼산업 동향

1. 국내 인삼 현황

가. 인삼 산업의 위치

인삼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유특산물로 국내 농작물 중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작목이다. 고려인삼은 품질이 우수하고, 탁월한 효능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국가 전략적 작물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단위 재배면적당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농가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득작물이다. 인삼은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농업에서 인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까지는 농림축산물 중 인삼의 농업생산액 비중이 1%내에 머물렀으나, 2009년에는 2.2%, 2011년 인삼 생산액은 10,666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2.5%를 차지하고, 농산물 중에서는 미곡, 견고추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작목이다<표 2-1>.

인삼은 4년이 1기작으로 시설고추, 사과, 배에 비해 소득은 낮으나, 전체적인 경영비가 낮고, 정식, 해가림시설 설치시 노동력, 자재비 등 비용 투자가 집중되고, 이후 수확시까지의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인삼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다<표 2-2>.

〈표 2-1〉 국내 농축산물 중 인삼의 위치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순위	10	429,951	10	435,233	10	432,141
1	미 곡	86,800	미 곡	67,874	미 곡	80,088
2	돼 지	54,734	돼 지	53,227	돼 지	46,446
3	한 우	38,054	한 우	45,820	한 우	28,393
4	우 유	20,229	닭	21,460	닭	21,860
5	닭	17,384	우 유	16,934	우 유	16,517
6	계 란	13,590	계 란	13,409	계 란	15,600
7	오 리	12,323	오 리	13,059	오 리	13,966
8	견고추	9,913	딸 기	10,542	견고추	12,939
9	인 삼	9,412	인 삼	9,385	인 삼	10,666
10	감 껍	9,065	감 껍	9,311	감 껍	9,859

〈자료출처 : 2012. 농림수산식품부〉

〈표 2-2〉 인삼 경영비 및 소득

구 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인 삼 (천원/10a)	조수입	10,074	12,573	14,428	14,525	13,149	13,537
	경영비	3,726	4,275	5,070	5,358	5,343	5,769
	소 득	6,348	8,298	9,258	9,167	7,806	7,768
쌀 (천원/10a)	조수입	1,047	917	880	854	944	968
	소 득	765	662	546	490	549	570
시설고추 (천원/10a)	조수입	12,758	14,566	14,300	16,374	18,514	17,460
	소 득	5,668	7,626	7,207	7,533	10,062	8,031
사 과 (천원/10a)	조수입	3,450	3,854	4,708	4,735	4,559	4,891
	소 득	2,205	2,511	3,205	3,123	2,621	2,937
배 (천원/10a)	조수입	3,331	3,461	4,092	4,318	4,715	5,228
	소 득	1,862	1,973	2,565	2,615	2,534	3,045

나. 재배동향

인삼재배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1996년 8,940ha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19,702ha로 기점으로 초작지 부족,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삼 생산량 또한 1996년 10,147톤에서 2009년 27,460톤으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증가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인삼 경작농가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23,795호에 이르고 있다. 농가당 재배면적은 1996년 0.38ha에서 2005년까지 0.92ha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인삼 재배농가의 증가로 경영규모는 2012년 0.68ha로 감소하였다(표 2-3).

〈표 2-3〉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

구 분	1996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재배면적 (ha)	8,940	12,445	14,153	19,702	19,010	17,601	16,174
생산량(톤)	10,147	13,664	14,561	27,460	26,944	26,737	26,057
농가수(호)	23,304	23,011	15,793	23,285	23,857	23,578	23,795
농가당면적 (ha)	0.38	0.54	0.92	0.85	0.80	0.75	0.68

〈자료출처 : 2013. 농수산식품부〉

인삼은 일반작물에 비해 고소득 작물로 한번 식재하면 한자리에서 4~6년 경과 후 수확하며, 연작이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배방법의 하나로 초작지에 재배하므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전남 등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표 2-4).

지역별 재배 및 생산현황은 〈표 2-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배면적은 늘어나는 추세이었으나 2009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재배지역도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 시도별 재배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3,519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북 3,138ha, 강원 2,548ha 순으로 1996년 충남, 경기, 충북지역에서 2012년에는 경기, 충북, 강원지역 순으로 점차 중부이북 지역

으로 확대되는 경향이였다. 강원도의 경우는 인삼 재배면적이 1996년 454ha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548ha로 5,6배나 증가하였다.

2012년 시도별 생산량은 경북이 4,433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4,303톤, 충북 4,296톤, 충남 4,174톤, 전북 3,830톤, 강원 3,505톤, 전남 1,204톤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지역별 연도별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변화

지역	재배면적 (ha)	1996	2005	2009	2012
합 계		8,940	14,153	19,702	16,174
경 기		1,803	2,846	4,326	3,519
강 원		454	1,228	2,277	2,548
충 북		1,773	2,772	3,983	3,138
충 남		1,876	3,000	3,617	2,324
전 북		1,947	2,768	3,096	2,137
전 남		144	514	1,001	976
경 북		795	872	1,092	1,253
경 남		43	21	60	68
기 타		105	132	250	211

〈자료출처 : 1996~2013, 농수산식품부〉

〈표 2-5〉 시도별 인삼 생산현황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기타
재배면적 (ha)	3,519	2,548	3,138	2,324	2,137	976	1,253	279
생산량 (톤)	4,303	3,505	4,296	4,174	3,830	1,204	4,433	312
농가수 (호)	5,297	4,652	4,596	4,436	1,723	449	1,928	714

〈자료출처 : 2013, 농수산식품부〉

주산지별 인삼 재배현황은 과거 주 재배지역이 금산, 음성, 영주지역 이었으나, 이들 지역의 인삼재배농가가 연작피해를 경감하고자 새로운 초작지를 찾아 출입경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고창, 여주, 이천, 홍천 등 지역이 새로운 인삼 재배지역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표 2-6, 7).

〈표 2-6〉 인삼 주산지별 재배면적 변화

연 도	2005		2009		2011		2012		
지역/순위	14,153ha		19,702ha		17,601ha		16,174ha		
전국	1	고창	930	고창	1,125	고창	962	고창	912
	2	금산	911	금산	982	괴산	844	홍천	781
	3	음성	676	여주	903	여주	807	여주	720
	4	이천	578	음성	870	홍천	757	괴산	657
	5	괴산	568	이천	846	금산	698	이천	648
경북	1	영주	402	영주	378	봉화	338	봉화	310
	2	봉화	146	봉화	238	상주	226	영주	308
	3	상주	110	상주	152	영주	209	상주	189
	4	예천	86	예천	83	예천	112	영양	105

〈자료출처 : 2013, 농수산식품부〉

〈표 2-7〉 영주지역 연도별 재배면적

연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출입경작율 (C/A, %)
		계 (A)	관내 (B)	관외 (C)	
2005	838	930	443	487	52
2007	1,017	1,085	487	598	55
2009	1,230	980	377	603	62
2010	877	1,324	378	936	71

〈자료출처 : 2011,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최근 논 직파재배 기술 개발로 금산·풍기 등 주산지 재배면적이 유지되고, 전남·강원 등은 신규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4년근 인삼은 금산 등 지역에서 고창·나주·해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6년근 인삼은 풍기·강화·포천 등 지역에서 홍천·영월·양구 등 강원 산간지로 확대되고 있다.

다. 소비 및 가격동향

국민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로회복, 면역력 증가 등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구명이 이루어지면서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980년 0.11kg 수준이었으나,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2012년)는 0.46kg에 이르고 있다.

인삼의 소비형태는 2012년 수삼이 전체 인삼 생산량 26,057톤의 51.0%로 소비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홍삼용으로 44.4%, 백삼류는 4.1%, 태극삼으로 0.4%가 소비되고 있다. 홍삼용(본삼 및 제품류 포함)은 수출 및 내수 비율이 9.7대 90.3%로 대부분이 내수로 소비되며, 백삼용은 86.1%가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인삼가격은 최근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일시 하락하다가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표 2-8>.

<표 2-8> 수삼 연도별 가격(단위 : 750g/4년/10편/원)

연도	1980	1990	2000	2005	2009	2011	2012
재배면적(ha)	6,839	12,184	12,445	14,153	19,702	17,601	16,174
소비량(kg/인)	0.11	0.26	0.26	0.28	0.48	0.46	0.46
가격(원/750g)	12,427	10,683	31,720	36,572	26,244	32,240	32,906
GDP(\$/인)	1,645	6,147	10,841	17,531	17,041	22,489	22,700

라. 수출·입 동향

인삼 수출은 1996년 수출액이 113백만불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 124백만불을 수출하면서 증가추세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1억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표 2-9>. 이는 농산물 중 단일 품목으로는 김치를 능가하는 수출 1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홍삼과 인삼음료, 인삼액즙, 부산물, 수삼 등이 늘어나는 반면, 백삼류는 감소하였으며, 주 수출국은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이며, 이들 지역이 수출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들 국가 이외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현재 총 79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표 2-10>. 인삼 수입은 1996년부터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인삼분, 인삼정, 인삼차, 인삼액즙, 인삼음료 등 가공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 확대의 가능성이 크다<표 2-11>.

인삼 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홍삼류가 69%인 104.1백만불, 백삼류가 18.7%인 28.3백만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홍삼류의 수출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11>.

<표 2-9> 연도별 인삼 수·출입 현황

구 분		1996	2000	2005	2010	2011	2012
수출	물량(톤)	2,393	2,078	2,098	3,298	3,712	4,379
	금액(백만불)	113	79	82	124	189	151
수입	물량(톤)	59	107	297	160	98	94
	금액(천불)	1,148	3,243	6,070	4,017	3,517	3,135

<자료 : 1996~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표 2-10〉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실적

구분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계(천달러)	139,936	78,986	82,745	108,916	124,204	189,346	151,012
총량	47,547 (34.0)	27,735 (35.1)	21,780 (26.4)	27,989 (25.7)	27,789 (22.4%)	45,611 (24.1%)	26,585 (17.6%)
일본	41,029 (29.3)	17,621 (22.3)	29,316 (35.5)	34,484 (31.7)	29,809 (24.0%)	33,095 (17.5%)	36,643 (24.2%)
대만	26,630 (18.3)	16,851 (21.3)	8,213 (10.0)	16,068 (14.7)	23,565 (19.0%)	37,812 (20.0%)	22,291 (14.7%)
미국	12,082 (8.6)	5,098 (6.5)	8,775 (10.6)	8,310 (7.6)	9,631 (7.8%)	11,143 (5.9%)	11,750 (7.7%)
중국	1,985 (1.4)	2,554 (3.2)	4,751 (5.8)	6,830 (6.3)	16,148 (13.0%)	45,611 (24.1%)	32,369 (21.4%)
베트남	1,318 (0.9)	2,631 (3.3)	3,229 (3.9)	6,185 (5.7)	7,143 (5.7%)	7,437 (3.9%)	6,324 (4.2%)
기타	2,181	2,313	6,341	9,050	10,119	8,637	15,050
수출국	65	71	72	78	77	85	79

〈자료출처〉 2012, 농수산물식품부

〈표 2-11〉 연도별 인삼 수·출입 품목별 현황

구분	수출(단위: 톤, 백만불)						수입(단위: 톤, 천불)					
	총삼류		백삼류		기타		수삼, 백삼, 홍삼		가공품류		인삼부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0	316	48.7	742	25.0	1,020	5.2	219	79.0	1,856	31.5	3	19
2005	500	46.3	611	28.6	987	7.5	172	36.0	1,926	46.5	-	7
2010	1,489	86.5	517	26.4	1,278	11.3	253	62.8	3,044	61.4	1	20
2012	1,500	104.1	396	28.3	2,483	18.6	278	77.4	2,488	51.1	-	18

주) 홍삼류: 홍삼, 홍삼정, 홍삼분, 홍삼조제품
 백삼류: 백삼, 백삼정, 백삼분, 백삼조제품
 기 타: 인삼음료, 인삼액즙, 부산물, 수삼
 가공품류: 인삼분, 인삼정, 인삼차, 인삼액즙, 인삼음료 등

〈자료출처〉 2000~2012, 농림축산식품부

2. 국외 인삼 현황

세계 인삼 생산현황은 2000년대부터 중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인삼 생산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반면에 한국은 증가폭이 적어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삼 생산량은 중국이 32,600톤(57.1%)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한국(14,561톤, 25.5%), 캐나다(수삼 환산, 13.3%), 미국(4.1%)의 순이다(표 2-12).

〈표 2-12〉 주요 국가의 인삼생산량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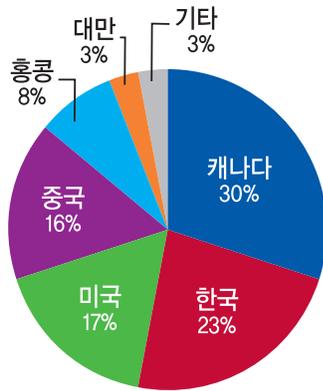
년도	중국(수삼)	한국(수삼)	캐나다(건삼)	미국(건삼)	합계(수삼기준)
2005	32,600 (57.1%)	14,561 (25.5%)	2,522 (13.3%)	783 (4.1%)	57,076
2006	41,750 (56.4%)	19,850 (26.8%)	2,771 (11.2%)	1,390 (5.6%)	74,083
2007	43,900 (58.0%)	21,818 (28.9%)	2,886 (11.4%)	437 (1.7%)	75,687
2008	29,800 (47.3%)	24,613 (39.0%)	2,670 (12.7%)	206 (1.0%)	63,041
2009	36,100 (50.7%)	27,400 (38.6%)	2,552 (10.8%)	n/a	71,216

자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FAO&WHO), Discussion Paper Extension of the 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DEX Regional Standard for Ginseng Products, July 2012.

주) ()안의 비율은 수삼으로 환산(건삼 중량의 3배)한 점유비율을 나타냄

중국과 캐나다의 경우 20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미국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조금 늘었으나 2007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최근 인삼 효능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기존 인삼생산국 뿐만 아니라 비(非)생산국도 경쟁적으로 인삼의 연구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이다. 기존 중국, 미국, 캐나다 이외에 독일, 프랑스, 호주, 벨기에, 뉴질랜드 등에서도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내화, 연구소를 통하여 인삼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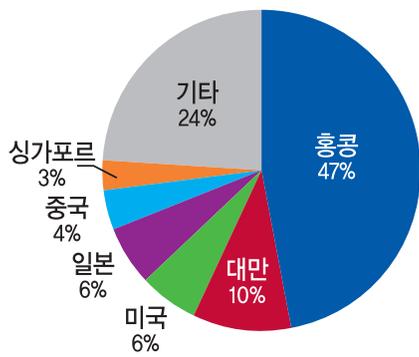


자료 : Global Trade Atlas

〈그림 2-1〉 주요 국가별 세계 뿌리삼 수출시장 점유율

2009년도 세계 뿌리삼 수출규모는 279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제 1위의 수출국은 캐나다로 84백만달러로 수출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제2위로 64백만달러의 뿌리삼을 수출하여 세계 주요 뿌리삼 수출에서 2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1).

뿌리삼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2009년도 뿌리삼 수입 규모는 249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9.51% 감소하였다. 제 1위의 수입국은 홍콩으로 117백만달러로 전체 수입시장의 47.0%를 차지하며, 제 2위는 대만으로 25백만달러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 전체 : GFA 집계 56개국 기준

〈그림 2-1〉 주요 국가별 세계 뿌리삼 수출시장 점유율

10%를 점유하여 중화권의 뿌리삼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삼 수입시장은 아시아와 북미지역이 90% 이상을 점유하며, 홍콩,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상위 5개 수입국이 전체 뿌리삼 수입의 70.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2).

전 세계 인삼 가공제품 시장규모는 약 12.2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 미국이 약 2억6천만 달러(21.3%)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표 2-13). 현재 세계 인삼가공제품 시장 점유율 1위는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 기업 베링거인겔하임의 자회사인 파카톤社(스위스)의 ‘진사나’이다. 파카톤社의 ‘진사나’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원료삼을 수입하여 유효성분 함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공정으로 효능이 강한 G115 사포닌으로 차별화한 사포닌 캡슐제품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 30~40%, 연간 매출 3억 달러(약 3,000억원)에 달하는 독보적인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홍삼, 홍삼분, 홍삼조제품 등 홍삼류와 백삼, 백삼정 등 백삼류 그리고 인삼 음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별 인삼 수출실적은 1990년대 중반 홍콩, 일본, 대만 등 3개국에 81.6%로 의존도가 높았으나, 2011년에 들어 그 비중이 61.6%로 낮아지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3〉 인삼 가공제품 소비 상위 10개국 시장규모(2009,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전체	1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멕시코
금액	1,215	880.4	258.4	137.1	82.24	56.95	52.92	41.53	38.47	34.65	33.51	25.32
비중	100.0	72.5	21.27	11.29	6.77	4.69	4.36	3.42	3.17	2.85	2.76	2.08

〈자료출처 : ICON Group International, Inc.〉

